

# 범야권 대선 16강전... '친윤 대 반윤'

### 힘겨루는 윤석열-최재형...추격하는 홍준표·유승민·원희룡 안철수·김동연 마지막 퍼즐...국민의힘 9월 15일 1차 예비경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을 계기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오르게 됐다.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경선 버스'에 타라고 윤 전 총장을 압박한 국민의힘은 이제 다음 달 15일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향해 버스를 출발시키는 일만 남겨두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주자는 1일까지 김태호 박진 심동보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원희룡 장기표 장성민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순·직함 생략) 등 14명에 달한다.

여기에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더하면 '범야권 16강 대진표'가 그려진다.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확정된 시간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두 차례 컷오프를 통해 8강과 4강을 차례로 가리고, 오는 11월 9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먼저 윤 전 총장은 이번주 국민의힘 인사들과 접점을 넓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자신의 본선 경쟁력을 부각하며 당내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그동안 부족했다고 지적받은 정

책 공약과 비전을 선보이는 데도 공들일 방침이다.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윤계'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당내 구도는 '친윤 대 반윤'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 지지율 1위를 차지한 윤 전 총장에게 검증과 견제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윤 전 총장 측은 "반윤이 어디 있느냐"며 계파 갈등을 경계하지만, 경쟁 주자들이 협공에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전선이 그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윤 전 총장 외에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주자가 없으나, 저마다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극적인 추격을 버리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는 4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국정 철학을 밝히고, 정책 라인을 갖추고 부동산, 청년, 일자리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한발 빠르게 국민의힘에 입당하고서 당내 지지율 1위 자리를 거머쥔 그는 일단 윤 전 총장과 힘겨루기에 나서며 양강 구도를 시도할 전망이다.

일찌감치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를 갖춘 홍준표 의원은 최근까지 12차례 'JP의 희망편지'라

는 이름으로 정책 구상을 소개하며 차별화를 노렸다. '윤석열 저격수'로 불려온 만큼 추후 당내 검증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 중순 대선출마 선언을 앞둔 유승민 전 의원은 SNS와 방송 출연을 통한 현안 메시지와 정책 대안 제시로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이다. 온라인 기자 간담회 등으로 언론과의 접촉면도 확대할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대선 행보에 올인한다. 당분간 전문가들과 관련한 정책 발표 시리즈로 지지세를 다질 전망이다.

안철수 대표와 김동연 전 부총리의 거취 문제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은 "제3지대가 소멸했다"고 자신하지만, 내년 대선에서 여야 후보의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범야권 통합은 여전히 정권 교체에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의당 합당을 위한 막판 담판과 김 전 부총리 영입 시도에 나서는 한편, 당내 경선 흥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경선이 시작되면 장외 주자들의 입지가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이 곧 야권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구심력이 세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쪽방촌 폭염 현장 점검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쪽방상담소를 방문해 무더위쉼터 등을 둘러보며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낙연에 각세우는 정세균... "단일화? 생각없다"

### "토지공개념 3법 동의 어렵다"

### 2025년까지 유아 무상교육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가 단일화를 거론한 데 대해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아주 부적절한 말씀을 했다. 조금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주제넘은 말을 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 캠프의 양기대 김철민 의원이 지난 27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와 의 단일화와 관련해 "국민이나 지지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같은 호남 출신인 이 전 대표와의 단일화 프레임

이 자신의 대선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썰기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

SNS를 통해서도 이 전 대표에 수차례 견제구를 날렸다.

우선 이 전 대표의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해 "정책 내용이 토지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며 "부동산정책에 또 하나의 치명적 오류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글에선 '남성들의 경우 군복무에 따른 피해의식이 있다'는 이 전 대표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며 "피해의식이 아닌 자부심"이라고 직격했다. 추가 SNS에선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공약 이행률 나뉠만큼 검증이 보기에 참 거시기하다. 두 사람 모두 명확한 답변을 내놓으라"며 "참고로 제 19대 국회 공약 이행률은 83.6%"라고 했다. 한편 정 전 총리는 다른 경선 후보들에게 1대 1 맞장 토론을 제안했고, 2025년까지 유아교육 무상교육을 이루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연합뉴스

## '5·18 사형수' 김종배 전 의원, 윤석열 지지 철회

### "국민의힘 입당 아쉽고 실망"

'5·18 사형수'였던 김종배 전 국회의원이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윤석열 예비후보를 더 이상 지지할 수 없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한국정치의 병폐인 극단적인 이념대결과 진영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적임자로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를 많이 했었다"면서 "윤 예비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은 아쉽고 실망스러울 뿐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극좌와 극우의 양극단을 배제하고, 중도에서 중심을 잡고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를 아우르는 실용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윤

석열과 함께 만들고 싶었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실패한 정당이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은 학살 정권의 후예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정당이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정당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 예비후보가 거대 양당 정당이 아닌 제3지대에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에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종배 전 국회의원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시민·학생투쟁위원회 총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이로 인해 군사정권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기습 입당 윤석열, 지지층 결집·이미지 제고 '다목적 카드'

###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입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입당은 기습적이었다.

제1야당 합류가 시간문제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정치권의 허를 찌른 모양새가 됐다.

지난 한 주, 입당을 기정사실로 하는 행보를 이어오면서도 최종 결정을 미뤘기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와 "치맥 회동"을 하고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고 부산 의원들과는 국밥집에서 '대선' 소주를 기울이기도 했지만, 막판까지 '최적의 타이밍'을 고심했다.

불과 하루 전 오후에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도 '8월 중 결단'을 예고했지만, 이날 새벽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결심한 지 몇시간 안됐다"고 말했다.

결단의 시점을 7월 말로 앞당긴 배경에는 이쯤에서 소모적인 입당 논란을 끝내고 지지자들의 불확실성을 덜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반문' 성향의 지지층 내부에선 "좌고우면한다"는 실망감이 확산되던 터였다.

윤 전 총장이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가운데)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 당사를 방문,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오른쪽 두번째) 의원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한 뒤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은 혼선과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우려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논란을 좀 종식하고 본격적으로 더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주자로서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한 대목이

다. 입당의 명분으로는 공정의 가치를 들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도 "경선 초기부터 참여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생각"이라며 "늘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면서 다른 대안을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sup>2</sup>
- 건 물 : 411 m<sup>2</sup>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540,000,000원

상담 010-3733-3933